

영호남 문화교류… 전통예술 한마당 담양서 열린다

오늘 담양 우도농악·경남 고성오광대 무대 올라
지역 경계 넘어 교류 확장…“전통문화 가치 조명”

전남과 경남을 대표하는 전통예술이 전남광주통합특설시 담양에서 한데 어우러진다. 경남의 국가무형유산 고성오광대와 담양의 우도농악이 한 무대에 올라 지역의 경계를 넘어 전통문화의 가치를 나누는 특별한 공연을 선보인다.

18일 담양군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 30분 담양문화회관에서 국가무형유산 ‘고성오광대’ 공연이 열린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남도, 고성군이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고성오광대보존회가 주관하는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담양군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영·호남 전통예술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연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 연계 등 현장 지원에

나선다. 무대에서는 경남 고성을 대표하는 전통 탈놀이인 고성오광대를 비롯해 청년 연희단체 ‘연희누리 뭉치락’의 판굿과 버나, 탈바꿈놀이 등 다양한 전통연희가 펼쳐진다.

고성오광대는 탈을 쓰고 춤과 연기, 음악을 함께 펼치며 서민들의 삶과 사회상을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전통 연희다. 이번 공연에서는 고성 지역의 전통예술을 담양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무대에는 담양의 대표적인 전통예술 자산인 우도농악 김동연 명예보유자가 함께한다. 김 명예보유자는 설장구 연주를 선보이며 고성오광대와 호흡을 맞춘다.

경남의 탈놀이와 전남 담양의 농악이 한



전남과 경남을 대표하는 전통예술이 전남광주통합특설시 담양에서 한데 어우러진다. 경남의 국가무형유산 고성오광대와 담양의 우도농악이 한 무대에 올라 지역의 경계를 넘어 전통문화의 가치를 나누는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설시 담양군청

자리에서 펼쳐지면서 서로 다른 지역의 전통예술이 어떻게 어우러지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화교류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공연은 담양군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내용은 고성오광대보존회 사무국(055-674-258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남의 우수한 전통예술이 담양에서 군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공연 준비와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영·호남의 서로 다른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경험하고 군민들이 전통예술의 가치와 매력을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수 기자 iss270@gwangnam.co.kr



장성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소방서가 취약가구 화재 예방 지원을 위해 힘을 모았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설시 장성군청

장성, 재난취약 654가구 화재 예방 지원

‘콘센트 소화패치’ 등 설치

전남광주통합시 장성군이 지역 내 고령, 아동, 장애인 가구 등 재난에 취약한 가구 654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전대책 강화에 나섰다.

18일 장성군에 따르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가 취약가구를 방문해 전기 시설과 주거 환경을 점검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지원사항은 △노후 전기시설 안전 점검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누전 차단 멀티탭 제공 △콘센트 소화패치 부착 △화재 및 생활안전교육 등이다. ‘콘

센트 소화패치’는 콘센트 안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식의 제품으로, 과열될 경우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분출돼 조기 진화에 도움을 준다.

사업은 오는 9월까지 시행된다. 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집중호우 기간 누전 등 각종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고, 취약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중 군수는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크나큰 피해로 이어지므로,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중요하다”며 “재해 취약 주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화순, ‘생활공예 창작교실’ 수강생 모집

21일까지 접수… 다양한 생활공예 직접 체험

전남광주통합특설시 화순군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예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생활공예 창작교실’ 수강생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군민들이 다양한 생활공예를 직접 배우고 작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창작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높이고, 전통 생활기술의 활용 가치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9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5회 운영되며, 화순군민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비와 재료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내용은 매듭공예, 한지공예, 냇강공예, 캘리그라피, 포크아트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가능하며,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61-379-5456)로 신청하면 된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숨은 매력 조명” 고흥 명소·노포 ‘한눈에’

군, 읍·면 관광지도 제작
체류형 관광활성화 기대

전남광주통합특설시 고흥군이 지역 내 16개 읍·면의 독특한 색깔과 매력을 담은 ‘읍·면 마을관광지도’ 제작을 완료하고, 군 공식 관광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마을관광지도는 기존의 유명 관광지 중심 안내에서 벗어나 16개 읍·면이 주체가 돼 각 지역의 정서와 숨은 관광자원을 세심하게 발굴해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지도에는 대표 볼거리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아기자기한 노포, 고즈넉한 마을 산책로, 정겨운 생



활문화 공간 등 ‘진짜 고흥’의 일상을 만날 수 있는 장소들이 다채롭게 수록됐다. 또한 맛집·카페 정보, 체험시설,

교통 안내 등 실제 여행객의 이동 동선과 편의를 고려한 실용 정보도 알차게 담겼다.

특히 16개 읍·면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제작에 참여해 지역별 고유한 특징이 지도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군은 이번 지도가 관광객들의 시선을 마을 구석구석으로 확장하고 지역 간 연계 관광을 촉진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작된 마을관광지도는 고흥군 관광 홈페이지(관광안내-관광지도 메뉴)에서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군은 향후 마케팅 활동에도 활용해 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현장의 생생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 16개 읍·면의 다채로운 매력이 어우러진 지도를 완성했다”며 “고흥을 찾는 방문객들이 이 지도를 길잡이 삼아 고흥 구석구석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해남,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 점검

군, 내달 18일까지 군민평가단 모집

전남광주통합특설시 해남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민선 9기 공약 실천 계획을 군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해남군 군민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9일부터 9월 18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해남군민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무작위 추출과 해남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구글폼) 신청을 병행해 1차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후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30명 내외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군민평가단은 민선 9기 공약 실천 계획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공약별 실천 계획의 내용과 추진 방향,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또 공약 실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군민의 목소리가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하게 된다.

군은 군민평가단 운영을 통해 행정 내부의 자체적인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군민이 직접 공약 실천계획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의 객관성과 완성도, 군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평가단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공약 실천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참여 제도다”며 “공약 실천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과 함께하는 공약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평가단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02-784-0881)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나주교육 빅뱅, 방학 중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학습코칭단 학교 찾아 1대1 맞춤형 학습·상담

전남광주통합특설시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의 학습공백을 예방하고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학습코칭과 상담 지원을 운영했다.

이번 방학 중 지원은 학습코칭단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생별 학습 수준과 특성을 살펴 1대1 맞춤형으로 이루어졌다. 학생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고,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과 습관을 함께 점검하며 방학 중에도 학습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습에 대한 부담이나 정서적 어려움 등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개별 상담을 병행해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와 학교생활 적응까지 살폈다. 이를 통해 방학 중 학습 리듬이 흐트러지는 것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새 학기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나주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방학은 학교 수업이 중단되면서 학습의 연속성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학생의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의 학습 특성과 필요를 세



심하게 살펴 학기 중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코칭을 이어가고,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합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순천 청년 직무역량 강화 집중

사회연대경제에 있는 사업 추진

전남광주통합특설시 순천시는 지역 청년에게 현장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신규 인력 채용과 직무교육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청년 인력을 연결하고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는 1억8590만원(국비 50%, 특별시비 15%, 시비 35%) 규모로, 9개 기업에 12명의 청년을 매칭한다. 주요 참여 직무는 매장 관리, 디지털 홍보·마케팅, 행정 및 콘텐츠 기획, 소품물 운영, 체험 프로그램 기획 등 지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실무 중심 직무로 구성된다. 현재 7개 기업과 청년 10명의 매칭을 완료해 현장 경험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청년에게는 실무 역량을 키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는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이다”며 “남은 미매칭 2개 기업에 대한 청년 모집도 조속히 마무리해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생태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최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연대경제 기반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